

收 書 政 策

助教 崔 貞 泰

차 례

1. 序
2. 서울大學校圖書館의 藏書構成現況
3. 바람직한 收書政策
4. 結語

1. 序

일찌기 T. 카알라일은 「現代의 진정한 大學은 圖書館이다」라고 喝破한 일이 있다. 그러기에 大學의 圖書館은 그 大學의 心臟이라 했었고 大學의 核이라 일컬어 왔었다. 大學의 심장이 허약하면 다른 모든 기관은 둔해지고 이와 반대로 이 심장이 강하면 다른 모든 기관이 생기를 띠게 된다. 이것은 圖書館이 한 建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運用하는 사람과 利用하는 사람 그리고 圖書와 施設을 包括한 全體가 有機的 組織體여서 大學으로 하여금 그 存在를 가지게 하는 生命體인 것이기 때문이다.

逆說的으로 大學의 圖書館은 한 附屬機關이 아니라 中心機關이며 知識의 寶庫요, 研究의 產室이어서 24時間 生動하는 大學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使命感에 처해있는 서울大學校圖書館은 지금 곧 雄飛의 綜合化를 앞두고 巨一步를 움직이고 있다.

이의 一環으로 一般國民과 言論機關들이 至大한 關心을 表示하였으며 國外機關으로 「아시아財團」등이 支援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루이스·이·마틴氏는 綜合化計劃에 對한 그의 報告書를 보내어 왔었고¹⁾ 이에 따른 意見

1) Louis E. Martin, The Librarie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 Statement of Management, Washington D.C. (May, 1972) 29p.

書가 發表되기도 하였다.²⁾

이와같이 圖書館의 綜合化를 爲하여는 各界의 意見과 건설한 批判이 必要하고 各分野別로 專門的政策이 設定되어 있어야 함은 두말 할 나위 없다. 그 中에서도 特히 看過해서는 안될 것은 收書政策이라 하겠다.

2. 서울大學校圖書館의 藏書構成現況

藏書構成을 하는데 있어서 收書管理體制의 確立과 妥當한 收書原則이 있어야 하겠고 藏書의 發展計劃에 이르기 까지 치밀히 考慮되어야 한다.

현재 서울대학교도서관(分館包含)의 장서수는 1973.4.1 현재 926,937책에 達한다(表 1參照). 이를 時期別로 보면 李朝歷代王室의 藏書인 奎章閣圖書가 舊朝鮮總督府로 부터 128,184책(14%)이 본 도서관에 保管轉換되었으며

<表-1> 장 서 현 황

구 분	%	도 서 수
		926,937
분 야 별		
0. 총 류	2.4	23,232
1. 철 학	1.0	9,177
2. 종 교	0.4	3,474
3. 사회과학	10.0	94,861
4. 언 어	0.9	8,381
5. 순수과학	4.0	39,899
6. 응용과학	8.3	81,006
7. 예 술	1.2	12,007
8. 문 학	2.6	24,735
9. 역 사	2.5	23,797
10. 미 정 리	8.0	63,101
小 計	41.3	383,670
규 장 각	14.0	128,184
경성제대도서	44.7	415,083
小 計	58.7	543,267

2) 이만갑, 마틴 報告書에 대한 意見書, 서울大學校圖書館報, V.9, No.1, (1972, 12) 2~10p.

<表 2>

圖書受入狀況表

서울大學校附屬圖書館

(1945年度 以後)

年度	東西 受入別		東洋書			西洋書			合計					
	受	贈	購	入	計	受	贈	購	入	計	受	贈	購	入
1946	1,608	3,266	4,874	99	308	407	1,707	3,574	5,281					
1947	1,162	762	1,924	307	747	1,054	1,469	1,509	2,978					
1948	1,143	700	1,843	1,799	1,241	3,040	2,942	1,941	4,883					
1949	121	381	502	382	18	400	503	399	902					
1950	55	250	305	522	7	529	577	257	834					
1951	0	2	2	0	0	0	0	2	2					
1952	18	145	163	290	22	312	308	167	475					
1953	1,159	4,541	5,700	995	179	1,174	2,154	4,720	6,874					
1954	172	299	471	77	24	101	249	323	572					
1955	955	1,038	1,993	1,367	154	1,521	2,322	1,192	3,514					
1956	832	530	1,362	1,379	86	1,465	2,211	616	2,827					
1957	703	208	911	499	74	573	1,202	282	1,484					
1958	1,543	190	1,733	264	40	304	1,807	230	2,037					
1959	1,467	931	2,398	860	128	988	2,327	1,059	3,386					
1960	1,006	917	1,923	458	59	517	1,464	976	2,440					
1961	710	3,379	4,089	249	732	981	959	4,111	5,070					
1962	1,233	2,623	3,856	585	1,008	1,593	1,818	3,631	5,449					
1963	1,597	1,811	3,408	1,291	941	2,232	2,888	2,752	5,640					
1964	1,642	1,692	3,334	1,144	484	1,628	2,786	2,176	4,962					
1965	1,618	3,158	4,776	662	522	1,184	2,280	3,680	5,960					
1966	3,739	1,474	5,213	724	402	1,126	4,463	1,876	6,339					
1967	3,419	1,108	4,527	646	444	1,090	4,065	1,552	5,617					
1968	2,872	1,033	3,905	535	503	1,038	3,407	1,536	4,943					
1969	1,836	347	2,183	695	562	1,257	2,531	909	3,440					
1970	2,768	652	3,420	1,166	256	1,422	3,934	908	4,842					
1971	5,184	1,241	6,425	1,337	590	1,927	6,521	1,831	8,352					
1972	7,828	714	8,542	1,536	236	1,772	9,364	950	10,314					
1973.3	911	886	1,797	480	855	1,335	1,391	1,741	3,132					
計	47,301	34,278	81,579	20,348	10,622	30,970	67,649	44,900	112,549					

1926년 京城帝國大學이 創立되고 1930년 同大學附屬圖書館이 新築되어 日人
들이 收集한 圖書 卽 재래식분류도서가 415,083책(44.7%)이 되어 1945년

그들이 물러날 때 까지 20년간 모은 資料가 都合 543,267책으로 현재 全藏 書量의 58.7%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光復以後 1945년 부터 1973년 3월 까지 우리의 손으로 수집한 도서는 383,670책에 불과하여 27년간 겨우 41.3%만을 確保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은 한번 檢討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속도서관(분관제외)의 1945년도 이후 年度別 受入狀況을 보면 <表 2>와 같다.

總 112,549책 중 受贈圖書가 67,649책으로 61.2%이고 購入圖書는 44,900책으로 38.8%이다. 이는 圖書館收書內容이 購入보다 주로 受贈에 依存한 印象을 엿 볼 수 있다.

그리고 1972년 한해 동안 우리가 구입·수증한 단행본수는 10,314책인데 비하여 가까운 日本東京大學附屬圖書館의 1969년도 한해 수입책수는 120,600³⁾책으로 우리보다 12배를 초과하고 있다.

또한 學術雜誌購入에 있어서도 같은 現狀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世界的으로 날로 文獻情報가 爆發하고 있어서 그 量이 世界 著名한 綜合目錄에 收錄된 逐次刊行物의 種數를 보면

Union List of Serials—156,449種

British Union Catalogs of Periodicals—140,000種

World List of Scientific Periodicals—60,000種

으로 推定되고 있다.⁴⁾ 이 중 현재 우리가 國內外에서 구입 및 교환·수증하고 있는 學術雜誌種數는 年間 4,998種⁵⁾으로 日本東京大學附屬圖書館의 1969年度 年間受入種數 25,856種⁶⁾의 不過 20%에 해당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狀況속에서는 收書政策이 제대로 施行될 리 없고 健實한 藏書構成은 생각하기 어렵다.

3) 1970年度 東京大學附屬圖書館實態調査表, 東京大學附屬圖書館月報 “圖書館の窓” V. 11, No. 1(1972. 1) p. 8

4) ドキュメンテーションハンドブック 1967. p. 376

5) 서울대학교통계년보 제11집(1972. 4) p. 76~77

6) 東京大學附屬圖書館月報 loc. cit.

3. 바람직한 收書政策

마아틴氏는 그의 報告書에서 장서확충을 위한 계획으로 도서구입예산증가와 새 캠퍼스에서의 도서관을 위한 기구종합화계획의 채택 이외에 장서확충 담당관(Collection development officer)의 지위가 도서관에서 마련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담당관은 수서계획에 대한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제적에 있어서 까지 최종적 결정을 지도록 요구하고 있다.⁷⁾

우리는 이제 당장 藏書擴充擔當官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하더라도 圖書選定委員會라는 公式機構가 設置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圖書館藏書의 發展計劃을 構想하고 妥當한 收書政策을 세워야 할 것이다.

收書政策은 나라마다 機關마다 圖書館의 설립목적에 따라 그 特色을 지니고 있다.

美國會圖書館(Library of Congress)에서는 레퍼런스국이 있어서 여기서는 特定分野의 전문가가 전문분야의 장서를 확장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選書의 三基準(Three Cannons of Selection)」이란 三大原則에 의해서 수집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聯邦議會의 議員 둘째, 聯邦政府의 職員 셋째, 一般公衆 即 이 도서관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利用시키기 위한 原則을 가지고⁸⁾ 수서의 基調를 두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학교도서관은 이러한 基調를 꼭 갖출 必要까지는 없다고 본다. 다만 教授 및 學生을 爲한 研究資料를 充分히 提供하고 奉仕하는 것으로서 足하다. 그 위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政策決定者나 學校當局이 大學教育에 있어서 도서관이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예산배정에 있어서나 기타 지원에 있어서의 인식해서는 안될 것이며, 도서관다운 도서관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만⁹⁾ 모든 문제점이 풀리는 실마리가 되겠고 最高의 經營者에서 부터 末端 實務陣에 이르기까지 確固한 圖書館觀(Library philosophy)이 確立될 때 비로소 圖書選擇에 있어서도 올바른

7) Louis E. Martin, op. cit., p. 16

8) 미국의회도서관의 수서정책(1) 국회도서관보 V. 6 N. 2(1969. 1, 2) p. 29

9) 圖書館—現況과 問題點—, 大學新聞, 1973. 5. 14 p. 3

른 機能을 發揮할 수 있을 것이다.

4. 結 語

도서관의 장서는 반드시 그 양적인 면만을 중요시 할 수 없다고 본다. 특히 대학도서관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질적인 면이 더 중요시 되어야 한다. 그것은 훌륭한 양질의 도서가 일정한 방법에 따라 유기적으로 조직되어야 하며 또 이것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도가 강구되어야 함은 대학도서관의 목적으로 보아 당연한 요구이다.¹⁰⁾

이에 의해 서울대학교도서관은 앞으로 종합화에 따라 良質의 圖書를 確保하여야 함은 再言을 要치 않는다.

參考書籍중에 가능한 많은 간행물색인을 보유하여야 하겠고 도서관 이용자들에 대하여 유용한 書誌調查員이 되기 위하여는 되도록 많은 인쇄된 索引과 抄錄등의 확보가 요청된다.

또한 大學의 상급학년 및 대학원생용 도서를 우선적으로 하고 教授用圖書 및 一般教養圖書에도 關心을 가져야 함은 물론 서울大學校圖書館이 가지는 諸機能이 圖書選擇의 性格을 決定짓는 것이므로 意識的인 目標에 비추어 選擇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質을 떠난 量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現狀을 推察할 수 있다.

藏書의 基準量에 依하면 「도서는 학생 1인당 30권 이상으로 하되 학과당 5,000권 이상과 학술잡지 5종 이상을 비치하도록」(大學設置基準令第11條 3項(1967.9.27) 大統領令第3226號) 規定하고 있는 바 單行本은 적어도 1,000,000책은 되어야 하고¹¹⁾ 學術雜誌에 있어서는 大學院의 경우 최소한 1學科당 20~50餘種의 雜誌를 갖추도록 要求하고 있다.¹²⁾

그리고 圖書選擇이 갖는 높은 目標는 適當한 時間에 適當한 冊을 適當한 讀者에 주는 것(The high purpose of book selection is to provide the right

10) 류동렬, 서울대학교 종합화에 따르는 도서관 종합화방안 입안을 위한 사견, 서울대학교도서관보 V.8, N.1, (1971, 6) p.8

11) Ibid., p.9

12) 서울大學校大學院, 大學院教育의 強化策研究, 서울대학교대학원 1971, p.66

books for the right reader at the right time(Drury, 1930)이며 最良의 圖書를 最低의 費用으로 最大多數의 사람에 읽히는 일(The best reading for the largest number at the least cost. (Dewey, 1876)¹³⁾에 있을진대 서울大 學校圖書館이 앞으로 아무리 綜合化한다 하여도 주어진 豫算은 일정하다. 따라서 最少限의 費用으로써 效果的인 收書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大學校의 諸機能에 따른 專門分野別 叢書나 索引類, 抄錄集 및 第2次資料(Secondary materials)에 重點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13) Mary Duncan Carter and Wallace John Bonk, Building Library Collections, The Scarecrow press, Metuchen, N.J. 1969 p.25